THE HOUSE INSIDE US



제2부

문턱 7

우리 안의 집

오랫동안 나는 기억이 하나의 문서고라고 믿었다.

하나의 그릇이라고.

사실, 이름, 날짜, 얼굴, 사건들을 보관해 두는 일종의 내면의 창고라고.

그것은 정돈된 시각이었다.

합리적이었다.

심지어 안심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다 시간이 내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은 보관하지 않는다.

기억은 거주한다.

문서고가 아니다.

하나의 장소다.

그리고 모든 장소가 그렇듯 방들을 지니고 있다.

복도들.

문들.

창문들.

어떤 것들은 자주 열린다.

어떤 것들은 몇 년씩 닫힌 채로 남는다.

무언가가, 갑자기, 그것들을 다시 열 때까지.

냄새 하나일 수도 있다.
길 하나일 수도 있다.
사진 한 장일 수도 있다.
무심코 흘려들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있지 않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 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하찮은 장면들.
탁자 하나.
목소리 하나.
반쯤 열린 문 하나.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
수십 년 동안 그것들은 침묵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 거의 섬뜩할 만큼의 정밀함으로 떠오른다.
마치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기억은 정말로 잊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선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간직한다.

기다린다.

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다.

장소들이 변모하는 것을.

도시들이 얼굴을 바꾸는 것을.

세계 전체가 통째로 녹아 사라지는 것을.

그런데도 무언가는 남았다.

기억이.

향수로서가 아니라.

연속성으로서.

향수는 뒤를 돌아본다.

기억은 잇는다.

그것은 중요한 차이다.

오랜 세월 나는 과거에 갇힌 사람들을 보아 왔다.

그리고 과거에 의해 빛을 받은 사람들도.

앞의 사람들은 되돌아가려 애썼다.

뒤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 낸 것을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다.

기억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감옥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도서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두 번째 가능성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과거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

과거와 대화하고 싶었다.

모든 경험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흔적을 남긴다.

모든 사랑이.

모든 실수가.

모든 떠남이.

모든 상실이.

모든 성공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남긴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우리 안에 살고 있는지 자문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한 사람.

스승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사랑했던 한 사람.

동료 한 사람.

스쳐 지나간 존재 하나.

많은 이들이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을 통해 계속 말한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들을 통해.

우리가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칙들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전체를 지니고 다닌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어떤 곳은 웅장했다.

어떤 곳은 잊혀도 좋았다.

어떤 곳은 설명이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기묘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

실제 지리와 내면의 지리는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 해를 살았는데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 도시들이 있다.

그리고 며칠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는 장소들이 있다.

기억은 시간을 재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를 잰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간직한다.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흐려지게 놓아둔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고도 정반대로 기억할 수 있다.

그들은 사실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간직한다.

그리고 의미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다.

나이가 들며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운다.

기억은 부동의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변한다.

같은 사건이 스무 살, 마흔 살, 예순 살, 여든 살에는 저마다 다른 의미를 띤다.

사건은 동일하게 남는다.

관찰자가 변한다.

그리고 관찰자가 변한다는 것은 해석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 발견은 내가 많은 것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기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된 경험에 새로운 독법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다.

때로는 엄격한.

때로는 다정한.

그러나 언제나 열려 있는.

과거를 지우려 애쓰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는 우리를 이루는 재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운다는 뜻일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것을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와 나란히 걷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

오늘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세월의 연속을 보지 않는다.

장소들을 본다.

내면의 장소들을.

어떤 곳은 환하다.

어떤 곳은 힘겹다.

어떤 곳은 아직도 수수께끼다.

그러나 모두 필요했다.

모두 같은 건축의 일부다.

어쩌면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기억은 돌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에게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 동떨어진 사건들의 나열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길의 끝에는 기억들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피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다.

영토로서 남는다.

내면의 풍경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되돌아가는 장소로서.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기억을 정신의 기능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의 조국으로 여긴다.

국경 없는 조국.

깃발도 없는.

주소도 없는.

내가 어디를 가든 계속 나와 동행하는 장소.

기억은 우리가 소유하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 준 모든 것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장소다.

기억은 하나의 장소다.